

차별화된 주거 문화로 고객 감동 이끈다 라이프 스타일 리더,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철학은 '라이프 스타일 리더'로 함축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이자 아파트 브랜드로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주거 공간을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라고 규정하는 등 주거 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다.



국내 최초·최고 하이오티 플랫폼으로 주거 문화 혁신

현대건설은 스마트홈의 근간인 IoT(사물인터넷)를 국내 건설사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러한 스마트앱은 현대건설의 대표 스마트홈 시스템 '하이오티(Hi-oT)'로 발전했다. 하이오티는 'H'와 IoT의 합성어로, 힐스테이트(Hillstate), 현대(Hyundai), 하이엔드(High-End)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이오티는 집 안의 빌트인 기기와 IoT 기능이 탑재된 가전제품을 하나로 연결해 관리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주차장 내비게이션' 기능을 담은 스마트홈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라스트 마일 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디자인'으로 시각적 차별화

힐스테이트는 독특한 디자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올해 2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에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H 아이 플랜터(H Eye Planter)'와

'힐스테이트 지제역 퍼스티움'의 조경경관이 위너로 선정됐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조경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H 아이 플랜터'가 수상하며 3D 프린팅 조경작품으로는 4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전기차 인프라, H-위드펫 등 새로운 인프라로 업계 선도

힐스테이트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맞아 올해 4월 '전기차 충전 전력 확충을 위한 사전 인프라'를 선보였다. 반려동물 친화 설계를 적용한 주거 모델도 선보이고 있다. 'H-위드펫'은 아파트 내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비롯해 자재, 시스템 등 현대건설의 반려동물 특화 설계를 아우른다. 또 근린생활시설 내 마련된 'H 프라이빗 스위밍 풀, 전동 수납장과 벽체 매립형 가구를 조합한 'H 트랜스 포밍 월&퍼너처 II' 등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